

# “쌀은 박제될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글 박연숙(본지기자), 사진 서정원(홍보과)



어렸을 적 우표 수집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연도별로 발행된 우표, 기념우표들을 모으고 우표첩에 꽂아 보관하는 기쁨, 어린마음에도 무척 뿌듯했던 생각이 난다.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 발행하는 크리스마스 썰도 수집가들엔 수집의 대상이 된다. 국내 발행본은 물론 외국의 썰까지, 한 번 그 재미를 경험하고 나면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 또한 수집의 마력이 아닐까?

엠코웰(주) 손시헌 사장도 썰 수집 마니아다. 협회 창립 이후의 썰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창립 이전에 발행된 썰, 해외의 썰까지 두루 섭렵한 그의 수집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 ■ 우표 수집하다 썰수집에 눈 돌려

손시헌 사장이 처음부터 썰을 수집했던 것은 아니다. 학창시절부터 우표수집을 해왔던 그는 가지고 있던 용돈 전부를 우표 사는 데 썼을 정도, 그러다 보니 썰 수집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썰 하면 대한결핵협회에서 발행하는 크리스마스 썰을 떠올리지만, 그 이전에 독일 베를린의 자선단체에서 발행한 썰이 있었어요. 복십자(터블 크로스)가 아니라 레드 크로스 마크가 그려진 것인데, 썰 수집가들 사이에선 이걸 최초의 썰로 보죠. 소위 ‘로컬 썰(Local Seal)’ 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썰 발행을 1904년으로 보고 있는데, 레드 크로스 썰은 이보다 훨씬 전인 1897년에 발행되었습니다.”

1953년도에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썰은 물론이고 협회에도 한두 장밖에 남아있지 않은 당시 기념엽서, 포스터 등을 전부 보유하고 있으니 과연 마니아답다.

그 뿐만이 아니다. 캐나다인 선교사 셔우드 홀에 의해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썰(1932년)부터, 금강산을 소재로 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압수당했다가 뒷 배경에 대문을 그려 넣어서야 비로소 발행될 수 있었던 1940년도 썰 원본 및 수정본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 ■ 썰은 역사다

처음 수집에 뛰어들었을 때는 사실 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 ‘수집’이란 것 자체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모아야할지 기준을 찾기 위해 썰 친목단체를 찾았고, 그곳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행한 도감을 구해 하나하나 맞춰보며 수집을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거의 구할 수 없는 국내 씨들도 외국의 경매사이트에서는 오히려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해외에 나갈 때면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직접 씨를 구입해 오기도 하니, 수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걸 어디다 쓰냐”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다고.

“수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모를 겁니다. 외국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느라 컴퓨터 앞에서 밤을 지샌 적도 있어요. 때로는 정상적인 씨보다 뭔가 비뿔어진 것, 잘 못 인쇄된 것들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지요. 실제로 수집가들에겐 이런 것들이 더 소장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 100여 개국의 크리스마스 씨를 보유하고 있는 그에게 “어떤 씨를 아끼느냐”는 질문을 해보았다.

“당연히 우리나라 씨예요. 씨는 씨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역사의 산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씨 발행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실을 통해 당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고, 발행 당시 씨 한 장의 가격을 통해 당시 통용되던 화폐의 가치를 알 수도 있으며, 그 해의 중요한 이슈를 씨 소재로 삼고 있는 만큼, 먼 훗날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손시헌 사장은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가톨릭회관 평화화랑에서 열렸던 씨 전시회에 세계 112개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 자료를 선뜻 내어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 전시는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한때 나비 우표에 빠져 나비 그림이 그려진 세계의 우표를 모았습니다. 언젠가 나비우표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될지는 모르겠어요. 죽을 때 다 싸가지고 갈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이 모든 걸 던지고 갈 겁니다. 씨와 우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모은 이 자료들이 도움이 된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언젠간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는 그의 말에서 수집에 대한 열정 만큼이나 큰 애착을 엿볼 수 있었다. †

---

**보건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씨 수집가를 찾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씨를 수집하고 계신 분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향후 동호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국내 씨를 비롯해 외국의 씨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계신 분 중에서 씨 동호회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대한결핵협회 홍보과(20-2636-527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